

금호타이어, 파업 위기감 “고조”

구조조정한 노사협상 결렬 ... 공장규모 줄이고 인력 감축 방침

금호타이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제시했으나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됐다. 6월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, 5월11일부터 2009년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6차 협상에서 회사의 인력감축안을 포함한 협상안에 노조가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.

금호타이어는 임금동결 및 정기승호 보류, 성과급 지급 불가, 학자금·교통비 등 복리후생 항목 2010년까지 중단, 정원 재설정 및 여력인원 전환배치, 품질혁신운동,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, 인력 구조조정 등 모두 7개 안을 제시했다.

금호타이어는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주와 곡성공장 규모를 70%로 줄이고 남은 인력 706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.

이에 노조는 6월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6월10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09>